



전주시보건소, 시청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 수급난이 심화된 가운데 전주시 공무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7일 전주시청에서 헌혈 이동차량을 활용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는 등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기념해 '희(血)로 회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전주시 직원과 시민에게는 헌혈증과 함께 △혈액검사 △혈압측정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매독항체검사 △에이즈검사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영화관람권 등 기념품도 제공했다. 헌혈증은 향후 본인과 가족의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보건소는 이날 사랑의 헌혈운동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헌혈 이동차량을 이용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주시 공무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혈액수급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비전대 평생교육원, 7기 방문간호 조무사 수료식

전주비전대 평생교육원은 지난 4일 제7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15명의 수강생과 문용규 부총장, 전북간호조무사회 이선옥 회장, 전주비전대 대외협력센터 조숙진 센터장, 김순정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최우수상인 총장상에는 전재정 교육생이, 우수상에는 홍미경 교육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표창장에는 김정춘 교육생, 그리고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 표창장은 이문범 교육생 등이 각각 수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표창장을 받은 김정은 교육생은 "힘들고 또 귀하게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간호조무사로 자부심을 갖고 초고령화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꼭 귀하게 쓰임 받는 보건인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을 마친 15명의 교육생들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수급자 가정방문을 통해 간호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방문간호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문의는 전주비전대 평생교육원(063-220-3982)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임실읍 새마을부녀회, 사랑애향 건강반찬 나눔 봉사

임실읍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미심)가 지난 4일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에 사랑애향 건강반찬(열무김치) 400kg(1봉 4kg)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임실읍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문 아침부터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열무김치를 담가 나눔 봉사를 실천했으며, 올해로 벌써 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성스럽게 담긴 열무김치는 임실읍 새마을부녀회 및 임실읍 행복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김미심 부녀회장은 "정성껏 담긴 열무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더위와는 여름철 무더위를 기운 내서서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읍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활동 환경정비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4회에 걸쳐 임실읍 진입 화단 잡초 제거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홀로 어르신들 위한 사랑'

김희수 도의원 · 효자2동 지사협, 어르신 생신상 차림 · 사랑애향 밀반찬 나눔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김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7일 동 주민센터 김희수 도의원과 함께 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로어르신 생신상차림과 사랑애향 밀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 사업을 통해 매일 생신을 맞이한 홀로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케이크와 미역국, 밀반찬 과일 등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섬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사랑애향 반찬 나눔 사업을 통해 식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추천 가정에 배달을 하며 안부도 묻고 있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기에 앞장서 온 김희수 전북도의원도 함께 해 그의 미를 더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 행복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더 잘 보살피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오 위원장은 "위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밀반찬들이 홀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시간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한상언 교수, 세계적 연구 공로 '교육부장관상'

전북대학교는 한상언 교수(사범대 수학교육과)가 지난 3일 디지털 위상수학 분야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교육발전 에 이바지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위상수학' 분야 권위자인 한 교수는 지난 3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위상수학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며 지난 20년 동안 이 분야에서 100여 편의 SCI-E 논문을 발표했고,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100회 이상의 기조강연, 논문발표 및 특강을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확계 30년 난제였던 디지털 러프(Rough set) 이론을 독자적인 이론 개발로 해결해 수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디지털위상수학 분야에서 독보적 연구 역량을 발휘했다.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학 교유의 영역을 로보틱



스와 패턴 인식, 정보처리, 퍼지 이론, 공업과 환경공학, 의료진단과 의료데이터 및 영상분석, 시스템 결합 및 감시, 신경회로망 이론 및 의사결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개발공사 육상팀 김지은, 여자 400m 전국대회 4관왕

'육상여신'으로 불리는 김지은(30, 전북개발공사) 선수가 잇따라 여자육상 400m 전국대회 4관왕에 오르면서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2일 경북 예천에서 열린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400m 김지은 선수가 55초45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0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기록(PB·55초 92)을 약 7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김지은 선수는 2일 오후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50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일반부 400m 결선에 출전해 55초 45초를 기록,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특히 이번 KBS배를 포함 올해 400m 전국대회 4관왕(대구 전국종별, 나주 전국실업, 익산 전국시리즈)을 달성하고 400m에서도 금(대구 전국종별), 은(나주 전국실업)을 획득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개발공사 육상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익산 2022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1600m 계주(김지은, 김예지, 노지현, 장세민)에서도 금메달(3:52:80)을 획득하며 전북육상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다. /김윤성 기자



전주자봉센터, 'HAPPY RUN' 엄마의 간식 봉사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간식을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7일 제과·제빵 분야 재능기부자 등 4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HAPPY RUN 엄마의 간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주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이날 제과·제빵 재능기부 봉사자인 행복나미봉사단(회장 김중환) 20여 명, 전주·전북 알뜰밥 카페 회원들로 구성된 알뜰봉사단(대표 임소영) 20여 명과 함께 따뜻한 간식을 만들어 지역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센터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24회에 걸쳐 간식을 만들어 '엄마의 반상' 지원 아동 300명과 지역아동센터 6개소, 기타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중환 행복나미봉사단 회장과 임소영 알뜰봉사단 회장은 이날 "작은 재능이지만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게 돼 보람된다"며 "뜻깊은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의옥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매주 귀중한 시간을 내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임실 성수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활동

성수면이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3일 국가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전개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월남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공을 세운 보국수훈자 등 4명의 유공자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월남 참전유공자인 박광은(76) 씨는 "방시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였고 국가에서 참전을 요구하여 그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명패를 달아 주며 예우해주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도 나라에 도움 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인월면,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 드려

남원시 인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은주, 민간위원장 이정업)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3일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일상을 차려드렸다. 이번 생일상은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흥부 사랑 봉사특화사업 덕분에, 이 사업은 홀로 생일을 보내고 계실 어르신 15명을 찾아가 생일 밥상을 차려 드리고 축하와 함께 안부를 물으며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생일상을 받은 어르신은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의 생일까지 챙겨주시고 고맙고 눈물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은주 인월면장은 "코로나 19로 집에만 계시는 우울하실 홀로어르신들에게 생일상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 국토정보공사, 농가일손돕기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3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농신보 남원센터(센터장 남용수)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지사장 강진규)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범 농협 및 유관기관 합동 농가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여명이 참여해 주생면 소재 남원농협 벼 육묘장에서 구슬밭을 흘리며 육묘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남원농협이 운영하는 벼 육묘장은 매년 벼 육묘상자 10만 장(450ha 면적량)을 생산해 관내 600여 농가에 공급,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권오정 지부장은 "범 농협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농가일손돕기 실시로 농업농촌에 도움이 손길을 전하고, 향후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협동조합 합집, 저소득층에 따뜻한 집수리 지원

전주시 인후2동 주민센터(동장 이진숙)는 7일 생활 형편이 어려워 주택을 수리할 수 없는 가정을 돕기 위해 협동조합 합집(이사장 김한평)과 발 벗고 나섰다. 이날 장애인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서 창호, 도배, 장판 출입문 등을 수리하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협동조합 합집은 전주시 해피하우스 및 집수리 사업에 수년간 몸담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했던 조합원들이 뜻을 같이하여 만든 법인 단체이다. 김한평 협동조합 합집 이사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여러 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해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